

올자스 슬레이메노프의 「아즈 이 야」와 이를 둘러싼 논란 : 투르크 유라시아주의의 한 예

한 정 숙*

1. 들어가며

러시아어권 지식사에서 유라시아주의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유라시아주의는 원래 볼셰비키 혁명 후 국외로 망명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1920년대에 형성되어 1930년대까지 계속된 사조로서 유라시아에 대한 독특한 규정과 파악 방식을 통해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논의였다.¹⁾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 1)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던 선구적 연구를 제외한다면,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에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연구자들도 유라시아주의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범식 교수는 러시아에서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주제에 대해 글을 발표해 온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Син, Бом-Сик, “Идеи “Евразийства” и современный российский идейно-политический процесс,” канд. диссертация, МГИМО, 1997. 06.; 신범식 (1998); (2001). 또한, 필자도 1999년에 유라시아주의와 범슬라브주의를 비교 검토하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정숙(1999). 러시아 바깥에서 출판된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주요 연구서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Böss(1961); Marlène Laruelle(1999), *L'idéologie eurasiste russe, ou, Comment penser l'Empire*, Paris: L'Harmattan; Laruelle(2008); Markus Kaiser(Hg.)(2004), *Auf der Suche nach Eurasien: Politik, Religion und Alltagskultur zwischen Russland und Europa*, Bielefeld: transcript, 2004; Shlapentokh(2007). 라뤼엘의 두 책 가운데, 첫 번째 것은 고전적 유라시아주의를 다룬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신유라시아주의를 다룬 것이다. 라뤼엘은 현재 거의 전 스펙트럼에 걸쳐 유라시아주의 사상을 가장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인데, 유라시아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나콜라이 트루베츠크이, 표트르 사비츠키, 니콜라이 알렉세예프, 레프 카르사빈 등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망명 지식인들은 볼셰비키 혁명 후 러시아의 미래에 대해 독자적인 새 구상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들의 사상적 특징은 한편으로는 종교성을 강조하는 관념론을 중시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 및 무신론에 반대한다는 점에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중심주의를 거부하며 러시아 역사와 문화의 독자성을 강조한다는 데 있었다. 이 두 번째 특징에서 유라시아주의의 가장 독자적인 요소, 곧 러시아인들과 아시아인들의 역사적 공존과 상호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역사적 고찰이 비롯되었다.

러시아 유라시아주의자들의 개념체계에서 유라시아는 통상적 의미의 유라시아와 다르다. 그것은 곧 러시아적 유라시아를 뜻하며, 러시아와 관련을 가졌던 문명론적 공간을 의미한다.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러시아를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닌 제 3의 역사문화적 공간 곧 유라시아로 규정지었는데, 이는 러시아인들과 긴밀한 관련을 가졌거나 러시아 국가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아시아계 민족(특히 유목민족)의 역사적, 현실적 역할에 대한 인정을 수반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러시아 지성사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경향에 비해 훨씬 두드러지게 러시아 역사에서 아시아의 의미를 중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이 드러낸 주된 관심은 슬라브인을 비롯한 유럽계 주민들과 아시아계 주민들이 러시아라는 단일 정치체 내에서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초기 유라시아주의는 대중운동을 형성한 적은 없이 지식인들의 이념적 운동으로 시종일관하였으며 소련 내부에서는 이들의 존재 자체가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소련 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신(新)유라시아파의 주장과 접맥되면서 다시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²⁾

2)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는 유라시아주의 선집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자들의 저작은 여러 종의 선집으로 묶여 나왔으며, 레프 구밀료프의 저작은 단행본, 총서 형태로 잇따라 출판되었다. 이들의 저서는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한 대도시의 서적 노점상의 좌판에서 아주 흔히 찾아볼 수 있었고, 일반 독자들도 이들의 저작을 구매했다. 필자도 이들의 저작 중 상당수를 거리의 노점상에게서 구입했다.

1920-30년대 유라시아주의자들은 20세기 후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신 유라시아주의자들과 구분되어 이제 흔히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자로 불리고 있다. 현재는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자들과 신유라시아주의자들에 대한 연구가 나란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유라시아주의에도 다양한 흐름이 있다. 알렉산드르 두긴(Александр Дугин)의 저돌적이고도 공격적인 신유라시아주의는 현실정치의 지형 속에서 푸틴의 대외정책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유라시아주의 자체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끄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해 왔다.³⁾ 러시아의 문화적 독자성을 유라시아론과 연결시킨 알렉산드르 파나린(Александр Панарин)의 문화적 유라시아론은 러시아 지성사에서 큰 줄기를 형성해 온 친슬라브주의와 연결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⁴⁾ 레프 구밀료프(Лев Гумилёв)의 에트노스(этнос) 유라시아주의는 그 방대한 체계로 많은 사람을 압도하면서 문명론 관련 논의에서 흥미로운 시사점들을 제공해 왔다. 그런 한편 그의 주장 중 반유대주의적 요소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⁵⁾

신유라시아주의의 흐름 중에서도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주의이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Нурсултан Назарбаев)가 제기한 유라시아 연합론을 통해서 공식적 담론의 지위로까지 격상했던 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주의⁶⁾는 러시아어권의 변방에서 비(非)러시

3) 두긴의 지정학적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의 대외적 팽창정책의 담론적 표현으로서 분석대상이 되고 있다; Höllwerth(2007). 잉그램은 푸틴의 대외적 강경정책과 두긴의 주장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Ingram(2001), 1029-1051.

4) 알렉산드르 파나린의 문화적 유라시아주의에 대해서는 Laruelle(2008), 83-106을 참조하시오.

5) 레프 구밀료프의 생애와 사상에 관해서는 Лавров(2000)를 참조하시오. Rossman(2002), 72-100에서는 구밀료프의 신유라시아주의를 반유대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Laruelle(2008), 50-82도 이 못지않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구밀료프의 이론을 분석하고 있다.

6) 나자르바예프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유라시아 연합의 이념과 전망을 설명하는

아인들에 의해 제기된 유라시아주의라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나자르바예프는 1994년에 유라시아 연합을 제안했었는데, 이 구상은 당시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과 다른 국가 지도자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에는 나자르바예프가 제안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가 출범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의 공식적 대외정책 이념으로서 유라시아주의의 성가를 과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주의가 러시아인들의 유라시아주의와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글에서 살펴볼 것은 카자흐스탄 출신의 시인 올자스 슐레이메노프(Олжас Омарович Сулейменов, 1936-)가 대표하는 언어학적 투르크 유라시아주의다. 1970년대에 등장한 그의 유라시아주의는 변방에서 제기된 것이자, 러시아-유라시아의 역사에서 광의의 투르크인들의 위치를 특히 부각시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현대사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유라시아주의는 그것이 등장한지 얼마 안 되어 소련 정권의 탄압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끈다. 아래에서는 슐레이메노프의 저서 『아즈 이 야(Аз и Я)』에서 제시된 ‘언어학적 투르크 유라시아주의’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둘러싼 소련 정치권과 학계의 논란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슐레이메노프의 ‘언어학적 투르크 유라시아주의’

올자스 슐레이메노프는 소련 시절 카자흐스탄의 수도였던 알마아타(알마티)에서 태어났다. 이 시기 알마아타는 무흐타르 에우에조프, 알랙세이 톨스토이, 세르게이 에이젠스테인을 비롯한 카자흐스탄인, 러시아인 문학인, 문화인들이 다수 거주하며 지적 문화적 개화를 이끌어가고 있던 도시였다.⁷⁾ 붉은 군대에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Назарбаев(1997).

7) Бахытжан Канапьянов, “Быть далеко услышанным: Олжасу Сулейменову – 70” *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 2003, Выпуск № 19.

복무하는 장교였던 아버지 오마르 슐레이메노프는 아들 올자스가 태어난 직후인 1936년 5월, 스탈린 정권이 주도한 공포정치의 와중에서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카자흐스탄 내 민족주의분자들을 일소한다는 의도에 따라 탄압의 대상이 된 것이다. 오마르는 강제수용소에서 복무하다가 처형당했는데, 흥미로운 우연의 작용으로 레프 구밀료프는 -훗날 그 자신이 직접 술회한 바로는- 노릴스크의 수용소에서 한동안 오마르 슐레이메노프와 같은 감방에서 지냈으며, 오마르를 자신의 절친한 벗이라고 여겼다.⁸⁾ 아버지 오마르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후 어머니 파티마 베델바예바는 1943년 언론인 압두알라 카라굴로프와 재혼하였다. 계부는 일에 헌신적이며 자기절제가 강한 사람이었다. 슐레이메노프는 문필로써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계부의 일상적 활동을 통해 배우며 성장하였다.⁹⁾ 그는 스탈린 체제의 탄압을 받아 희생된 생부와 스탈린 체제 아래서 언론인으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한 계부라는 두 아버지를 둔 사람이었던 것이다.

슐레이메노프는 “고만고만한 저널리스트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고만고만한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낫다”고 강력히 권한 계부의 뜻에 따라 처음에는 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하였다. 그러나 소년 시절부터 품어온 문인이 되려는 꿈을 포기할 수 없어, 지질학과 졸업 후 다시 모스크바의 고리키 문학대학에 입학하여 문학을 공부하였다.¹⁰⁾ 그 후 그는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시인, 정치 사회평론가, 문명비평가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페레스트로이카 시기부터는 반핵 환경운동가로도 이름을 날렸다. 나아가 1990년대 초 카자흐스탄이 독립

http://www.lgz.ru/archives/html_arch/lg192006/Polosy/6_3.htm 검색일 2009. 08. 12.

- 8) Олжас Сулейменов, “Об отц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ний* т. 7, Алматы: Алтамұра, 2004, 179; Сулейменов: “Некоторые идеи Азия непоняты до сих пор” Dialog 18.04.2008 <http://www.dialog.kz/?lan=ru&id=95&pub=958> 검색일 2009. 07.21.
- 9) 계부 카라굴로프와의 관계, 계부가 슐레이메노프의 삶에서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Сулейменов, “Об отце”, 179-181.
- 10) Сулейменов, “Об отце”, 179; Сулейменов: “Некоторые идеи Азия непоняты до сих пор”.

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레프 구밀료프(1912년생)보다 연하로서, 구밀료프보다 약간 나중에, 그리고 구밀료프와는 약간 다른 출발점에서 유라시아주의적 담론을 발전시켰다. 1975년에 출간된 「아즈 이야」는 그의 많은 저서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저작이다.

술레이메노프는 카자흐스탄인이며 카자흐스탄에서 교육을 받은 문필가이나 러시아어를 제 1 언어로 삼고 있으며,¹¹⁾ 시집을 포함한 모든 저서를 러시아어로 집필하였다. 즉 그는 러시아인은 아니나 러시아어권 사람이다. 그리고 소련시민으로 태어나 활동한 사람으로서 그의 글에는 소련 시민으로서의 의심할 수 없는 정체성을 담은 내용들도 적지 않다. 예컨대 그는 1972년 1월 카자흐스탄 작가동맹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당시의 카자흐스탄 문학은 소련 카자흐스탄 문학(казахская советская литература)인 것으로 보고 있었고,¹²⁾ 나아가 새로운 민족으로서의 소련 인민의 탄생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기도 하였다.¹³⁾ 그러나 그의 소련시민적 정체성은 러시아적 정체성과는 별개의 것이었으며, 앞으로 살펴보게 되듯, 이와는 적지 않은 충돌을 빚기도 하였다.

술레이메노프는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러시아어로 시를 발표하여 소련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꽤 알려졌다. 1960년대 그의 시집들을 장식하고 있는 거친 황야의 풍경과 기마민족적 정서는 유목민 후예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어이, 폴로베츠인들의 땅이여,/ 그대는 군마로 이름 드높지./ 보게

11) 술레이메노프는 유년 시절 알마아타의 러시아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Олег Цыганов, “Мир пока не превращен в пустыню,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понять свое Слово. О Слове и «Слове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с Олжасом Сулейменовым беседуют Гульнара Рахметова и Олег Цыганов.”

http://www.pseudology.org/tatary/Sulejmenov_3.htm 검색일 2009.07. 20.

이 글은 2005년 (9월 이전) 술레이메노프와 두 명의 면담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술레이메노프는 유네스코 본부 카자흐스탄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 인터뷰를 했다.

12) Олжас Сулейменов, “Портить отношения: Доклад на пленуме правления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Казахстана”,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 6, Алматы: Алтамұра, 2004, 61.

13) 위의 책, 72.

나, 칠혹 말들 거닐지 않는가,/ 메마른 풀밭 위 폭우 속을 말일세./ 젊은 말을 내게 주게,/ 내 속 혈관이 뛰노네./ 땅 끝까지 말달려 가겠네./도시와 초원들/ 말발굽아래 기울어질 걸.”(“Арнамак” 중)¹⁴. 또한 그의 시에서는 텡그리 승배를 비롯하여 유라시아의 유목민 문화 전통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하는 내용들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특히 “Ноги”중 “Преступление третье”)¹⁵)

기마민족적 정서를 중시하는 그의 시풍은 카자흐인들의 독자적인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인정해야 한다는 그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견해와 관련하여 그는 카자흐스탄 지식인 사회에서 결코 고립된 존재는 아니었다. 알마아타에서 발간되는 카자흐스탄의 대표적 문학잡지 『줄드즈』(Жұлдыз, Жулдыз)¹⁶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일군의 카자흐스탄 문인들은 카자흐스탄의 문화 전통과 카자흐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공통성을 드러냈기에 ‘줄드즈 그룹’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술레이메노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¹⁷ 그런가 하면 그는 당시의 소련 시민으로는 드물게, 뉴욕, 시카고, 런던, 파리 등등 수많은 외국 도시들의 풍경과 삶을 관찰하고 도회적인 감각과 소회를 시 속에 담아내기도 하였다. 이는 단지 자국 전통문화의 테두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광범하게 관심을 확장해가는 그의 지적 태도와 관련이 있었다고 하겠다. 그는 카자흐스탄의 문화적 전통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거부하고 서구문화와 러시아문화를 비롯한 외국 문화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19세기 말 카자흐스탄의 문화적, 문학적 선각자였던 아바이 이브라힘 쿠나바울르(Абай Ибраһим Құнанбайұлы, 1845-1904)¹⁸에 비

14) Сулейменов(1964), 7.

15) Сулейменов(1969), 143-189 여러 곳.

16) ‘줄드즈’는 카자흐어로 별을 뜻한다. 1928년에 창간된 『신문학』(Жана әдебиет, Новая литература) 지가 그 후 몇 차례 이름을 바꾼 끝에 1957년부터 채택한 제호가 ‘줄드즈’다.

17) Olcott(1983), 10-13.

18) 러시아식 이름은 쿠나바예프(Абай Ибрагим Кунабаев). 아바이는 카자흐어로 ‘주의 깊은 사람, 신중한 사람’을 뜻하며, 이브라힘 쿠나바울르의 별명이다.

견할 만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슬레이메노프 자신도 아바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문학계의 대선배로서 깊은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다.¹⁹⁾

그런 한편, 문명과 문화의 교류 및 상호관계에 대한 슬레이메노프의 관심은 단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사유에만 머무르지 않고 좀더 넓은 의미의 동방 문화와 서방 문화의 관계에 대한 성찰로 확장되었다. 1960년대의 시 가운데 몇 구절은 특별히 동서 문명의 상보적 관계, 문명사에서 양자의 동등한 의미에 대한 문명론적 선언으로 읽힐 수도 있다. “동(Восток)이 없다면/ 서도 없지./ 하늘에 끌도 없지./ 동이 없다면/ 서도 없지./ 아버지에게 두 아들 있지./ 동이 없다면/ 서도 없지./ 일출(восход)과 황혼(закат)이/ 있어서/ 위대한 이 말도 있지/ ‘대지’라 하는.” (Земля поклонись человеку! 중)²⁰⁾

이 두 번째 인용시구는 사실 1961년 4월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선 ‘보스톡’ 1호를 타고 우주비행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여 지은 송시의 일부이다. 여기서 ‘보스톡’-‘동’은 가가린이 탔던 우주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류문명사의 한 범주로서의 동방문명권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위에서 ‘일출’과 ‘황혼’으로 번역한 ‘восход’와 ‘закат’도 각기 ‘동방’과 ‘서방’으로도 옮길 수 있다. 즉 이 시에서는 ‘동방이 있어야 서방이 있다’는 구절이 열렬한 확신 속에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슬레이메노프는 같은 소련 시민 가가린의 우주비행 성공을 기뻐하며 열광적인 축시를 쓰는 젊은 시인으로서, 한편으로는 소련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하면서,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상대주의와 문명공존론 속에서 동방문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소련권에서는 동과 서의 평화공존에 관한 생각도 실상 소련체제가 규정한 사고범주 내에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생각할 때 그의 국제주의와 문화적 상호주의는 더욱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슬레이메노프는 역사와 언어에 대한 사유를 통해 여러 사회들 사이의 문화

19) Сулейменов, “Портить отношения: Доклад на пленуме правления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Казахстана”, 43, 51, 55.

20) Сулейменов(1964), 281.

적 교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더욱 발전시켜 갔다. 그 결과가 1975년에 발표된 『아즈 이 야』였다. 이 책은 학술 서적과 일반교양서의 중간쯤에 위치시킬 수 있을 특이한 저술로, 저자 자신이 규정하기로는 ‘문학적, 철학적 에세이 선집’이다.²¹⁾ 그는 이 책에서 투르크 지식인의 견지에서 역사와 문명에 관한 독특한 유라시아담론을 펼치고 있다.

술레이메노프는 전문 시인답게 언어분석을 중시하고 또 이 점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 왔으며, 『아즈 이 야』는 특히 이 분야에서 그가 기울인 지적 노력을 담고 있다. 제목 『Аз и Я』는 중의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아시아를 뜻하는 러시아어 Азия를 파자하여 ‘아즈 이 야’로 분리한 것이다. 그런데 Аз은 ‘나’를 뜻하는 고대 슬라브어이며 Я는 ‘나’를 뜻하는 근대 러시아어이다. 중간에 и는 ‘그리고’를 뜻하는 접속사이다.²²⁾ 따라서 ‘아즈 그리고 야’는 아시아의 여러 요소들을 뜻함과 동시에 고대 러시아문명과 근대 러시아 문명의 총합체로서, 러시아인들의 고대적, 근대적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그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을 파악하듯, 아시아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던 아시아(중앙 아시아)의 초기단계 삶이 슬라브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²³⁾

‘아즈’와 ‘야’가 나란히 쓰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이 책이 다양한 “나”, 곧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전반부는 고(古) 루스 사회의 산물로 알려져 있으며 동슬라브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적 보배인 『이고리 원정기』(Слово о полку Игореве)에 대한 ‘다시 읽기’이다. 이 서사시는 잘 알다시피, 12세기 말, 루스 연합군을 이끌고 폴로

21) Цыганов, "Мир пока не превращен в пустыню,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понять свое Слово."

22) 술레이메노프 자신이 1975년 10월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 신문을 위해 가진 인터뷰에서 ‘아즈 이 야’라는 제목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Сулейменов, “От мифа к истин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 6, 93.

23) 위의 책, 93.

베츠인들의 땅으로 원정을 떠났다가 아들인 블라디미르와 함께 포로로 잡혔던 노브고로드 세베르스키의 통치자 이고리 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고리와 블라디미르는 폴로베츠인들의 지배자인 콘차크 칸에게서 너그러운 대우를 받으며 지냈으며, 그 가운데 이고리는 폴로베츠인 가운데 기독교 신자인 오블루르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도망치는 데 성공한다. 콘차크 칸에게서 폴로베츠 여인과 결혼하라는 제안을 받은 아들 블라디미르를 남겨둔 채.

『이고리 원정기』는 18세기 말 무신-푸쉬킨 백작에 의해 유일한 사본이 발견된 이래 끊임없는 진위논란 속에 휩싸여 왔다. 더구나, 이 유일한 사본이 1812년 나폴레옹 침공 당시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대화재 속에서 소실되었고, 예카테리나 2세 통치시기에 이 사본을 다시 필사한 판본들만 남게 되는 바람에 진위를 둘러싼 시비는 더욱 거세졌다. 진위논란과 함께 텍스트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도 물론 끊이지 않았다. 러시아 제국과 소련의 많은 학자, 해석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서사시의 배경을 이루는 것은 폴로베츠인들을 비롯한 루스 동남부 초원 유목민들과 루스인들 사이의 적대적 관계였다고 설명해 왔다. 이 해석은 과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인가? 여기에 더하여, 서사시 가운데 일부 어색한 구절과 표현들에 대해서는 좀더 타당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었다.

슬레이메노프는 고리키 문학대학 재학 시절부터 『이고리 원정기』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1962년에 『이고리 원정기』 속의 투르크적 요소에 대해 처음으로 논문을 발표한 이래²⁴⁾ 『아즈 이 야』의 출판 전까지 이 서사시에 대해 십 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었다.²⁵⁾ 그만큼 그에게는 이 책이 슬라브인들과 중앙 아시아인들의 시원적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었다.

24) 슬레이메노프가 이 주제에 대해 처음으로 발표한 논문제목은 “유목민들과 루스”(Кочевники и Русь)이다. А. Г. Бобров, “Сулейменов Олжас Омарович”// Энциклопедия Слова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http://feb-web.ru/feb/slovinc/es/es5/es5-0831.htm> 검색일 2009.07.21.

25) Сулейменов, “От мифа к истине” 중 편집자의 말, 88.

술레이메노프는 작품의 진위여부와 관련해서는 약간 복합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이고리 원정기』 자체는 의심할 여지없이 12세기에 씌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무신-푸쉬킨 백작이 발견한 사본은 12세기 것이 아니라 후대에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구성과 세부 묘사에서 『이고리 원정기』 원본 텍스트에 가장 가까운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또 다른 서사시인 『자돈시치나』(Задонщина)이다. 모스크바 대공 드미트리 돈스코이가 콜리코보 전투에서 마마이가 이끄는 타타르 군대를 물리친 사건을 그린 서사시인 『자돈시치나』는 14세기 말 이후에 씌어졌는데, 술레이메노프의 주장으로는 원본 『이고리 원정기』를 모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양자 사이에는 외형적 특징에서 유사성이 아주 큰데다, 14세기 말 이후에 씌어진 『자돈시치나』에서는 군데군데 12세기 전후한 시기의 표현법이 구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르크식 어법과 어휘(Тюркизм)가 『이고리 원정기』에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야말로 이 작품이 12세기 무렵에 씌어진 것임을 입증한다.

술레이메노프의 견해로는, 『자돈시치나』가 글로 씌어질 때에는 『이고리 원정기』의 필사본들이 남아 있었기에 『자돈시치나』의 필사자가 원정기를 모범으로 하여 이 새로운 서사시를 썼다. 그리고, 15세기와 16세기에는 러시아 정교의 수도사 필사자들이 이고리 공의 원정 이야기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 당시까지 남아있던 사본을 근거로 『이고리 원정기』의 새로운 필사본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에는 이미 정교회 수도사들의 기독교적 성향이 필사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러한 방향으로 표현상의 수정도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12세기의 원본 『이고리 원정기』가 16세기 이후에는 다소 왜곡되거나 부정확하게 필사된 것이다. 무신-푸쉬킨 백작이 발견한 것은 이처럼 후대의 기독교 중심주의적 분위기가 반영된 필사본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 때 다른 사본들은 이런 저런 연유로 사라져 버린 후였다.²⁶⁾

따라서 술레이메노프의 의견으로는 『이고리 원정기』는 12세기와 16세기라는 두 시간대의 문학적 기념물이다.²⁷⁾ 어떤 경우든, 그것은 근대에 들어와 날

26) Сулейменов(2005), 18-24.

조된 것은 아니다. 슬레이메노프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때까지 불분명하게 남아있던 모호하고 불가사의한 구절들을 독해함으로써 텍스트를 제대로 해석해내는 일이다.

슬레이메노프의 견해로는 『이고리 원정기』는 동슬라브인들과 투르크 민족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상호접촉과 문화적 상호작용의 증거로 읽혀야 할 작품이다. 그가 보기에 루스인들과 폴로베츠인들의 관계는 대립적이거나 기보다는 오히려 우호적이었다. 슬라브인들과 투르크 유목민들은 유라시아 동남부 초원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나누며 공존하였다. 투르크 민족들은 통혼과 교역에 의해 루스 사회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²⁸⁾ 특히 두 사회의 지배자가문은 서로 간의 빈번한 통혼으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었으며, 루스인 공들의 혈관 속에는 폴로베츠인들의 피가 적지 않게 흐르고 있었다.²⁹⁾

슬레이메노프의 주장을 따르면, 초원 지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초원민족 지배자(상대적 강자)의 딸들은 정착 농경민족사회 지배자(상대적 약자)의 아들과 결혼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고리 원정기』의 주인공인 이고리 공 자신도 여러 겹에 이르는 슬라브인-폴로베츠인 결합이라는 가족적 배경을 가진 인물이다. 바로 그의 할아버지인 올렉과 아버지인 스바토슬라프도 각기 폴로베츠인 공주와 결혼하였다.³⁰⁾ 게다가 이고리와 콘차크 칸은 사돈지간이 된다. 왜냐하면 이고리의 아들인 블라디미르가 콘차크 칸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³¹⁾ 옛 루스 사회는 투르크 민족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적대의식은 조

27) 위의 책, 19.

28) 위의 책, 162-163.

29) 위의 책, 128-130.

30) 위의 책, 113.

31) 위의 책, 103. 블라디미르와 콘차코브나의 결혼문제는 사실 애매한 면이 없지 않다. 서사시 『이고리 원정기』에는 블라디미르와 콘차코브나의 결혼 이야기가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이 작품은 ‘아름다운 처녀로써 젊은 때(블라디미르)를 매혹 시키고자’ 하는 콘차크 칸의 발언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고리 원정기』, 208. 루스 사회의 연대기의 하나인 『이파티 연대기』에는 1185년 황에 이고리가 콘차크의 ‘свар’라 불렀다는 기술이 등장한다. ‘свар’는 사돈이라는 뜻과 중매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전자의 의미라면 블라디미르와 콘차코브나의 결혼으로 이

금도 가지고 있지 않던 사회였다고 슐레이메노프는 주장하였다.³²⁾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양자 사이의 빈번한 전쟁은 그 성격상 종교적인 것도, 민족적인 것도 아니고 단지 봉건적인 것, 왕조적인 것일 따름이었다는 것이다.³³⁾

『아즈 이 야』의 저자가 보기에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투르크인들의 언어적 요소들은 서사시 『이고리 원정기』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구성요소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12세기 당시 루스 사회에는 수많은 투르크인이 거주하였다. 그들은 투르크어를 일상어로 사용했으며, 그들의 어휘와 민속을 포함한 투르크적 요소들이 옛 루스인들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하였다. 슐레이메노프를 따르자면 『이고리 원정기』의 원저자는 작품 속에서 투르크적 요소들을 배제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 당시 루스 사회는 투르크어와 슬라브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사회였기 때문이다.³⁴⁾ 슐레이메노프는 이 서사시가 이중언어 사용 독자들을 연두에 두고 씌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고리 원정기』에서는 투르크인들이 슬라브 사회에 미친 언어적 기여의 실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따르면, 『이고리 원정기』 가운데 현대 러시아어로 이해할 수 없는 구절 및 표현들은 투르크적 언어용법과 민속적 전통에 비추어 보면 그 의미가 명백히 규명된다. 예를 들어 이고리는 자기 형제인 브세블로드를 향하여 ‘부이 투르 브세블로드’(буй тур Всеволод)라고 말을 붙인다. ‘부이 투르’라는 말이 근대 러시아어에는 없기 때문에 무신-푸쉬킨을 비롯한 많은 해석자들이 이 말의 뜻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런데 슐레이메노프의 주장으로는, 11-12세기 킵차크인들 사이에서 이 말이 ‘고귀한 나으리’(высокий господин)을 뜻하는 것이었음을 안다면 문제는 바로

고리와 콘차크 칸이 사둔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파티 연대기의 1185년 항이 『이고리 원정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A. A. Zimin(2006), 63, 88. 두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은 19세기에 작곡된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리 공’에 이르러서이다.

32) Сулейменов(2005), 92.

33) 위의 책, 92, 130.

34) 위의 책, 163.

풀린다.³⁵⁾

슐레이메노프는 『이고리 원정기』에서 다른 여러 가지 예도 들고 있다. “Всеслав ‘из Киева дорискаше до курь Тмуторканя,” 라는 문장에서 ‘до курь’라는 구절을 리하초프는 “до куриц”, 즉 ‘동이 트기 전에’라 번역하였다. 그러나 투르크어에서 ‘kura’가 ‘벽’, ‘성벽’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구절은 ‘브세블로드는 트무토르칸 성벽에 도달하였다.’라고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 슐레이메노프의 견해이다.³⁶⁾ 슐레이메노프는 이 서사시의 저자가 투르크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였다고 상정한다. 그것이 12세기의 시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슐레이메노프가 보기에는 брак, супруга, первый처럼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쓰이는 많은 단어들도 투르크어에서 유래한 것이었다.³⁷⁾

슐레이메노프는 『이고리 원정기』를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서의 우리(즉 슬라브 사회로서의 루스 사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나”(개체)들의 집합체에 대한 이야기’로 여긴다. ‘다양한 “나”’들은 하나의 개체 안에 결합되어 있는 인물들(персонажи)이다.³⁸⁾ 이 다양한 ‘나’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투르크적-유목민적 요소인 것이다. 슐레이메노프는 이 개체의 이름을 따로 지칭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유라시아 세계를 말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즈 이 야’는 슬라브인과 투르크인을 의미하며 이 양자가 함께 이루는 사회 곧 유라시아적 세계의 다른 이름이다. 더욱이 『아즈 이 야』의 후반부³⁹⁾에서 저자는 투르크 문화(및 좀더 포괄적으로는 유목적 아시아 문화)와 수메르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관계를 탐색하고 있다.⁴⁰⁾ 이는 근대적 국경의 테두리, 근대 국가체제의 틀로는 포착할 수 없는 문명들의 교류

35) Сулейменов(2005), 48.

36) 위의 책, 54.

37) 위의 책, 131-134.

38) 위의 책, 8.

39) 후반부는 전반부에 비해 분량이 훨씬 더 적다.

40) Сулейменов, 171-267.

와 상호의존에 관한 탐색이다.

슐레이메노프는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자들(특히 니콜라이 트루베츠크이와 게오르기 베르나드스키)과는 달리, 그러나 몽골지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몽골 지배 이전(13세기 이전) 루스인들과 다양한 주변 유목민들의 관계를 면밀히 살핀다.⁴¹⁾ 그가 보기에 몽골지배기(13-15세기)는 슬라브 사회에 특별하게 기여한 바가 없었다. 그런 만큼, 그에게는 다양한 문화, 생활방식들이 공존했던 삶의 장으로서 키예프 시대와 그 시대의 문학적 생산물로서 『이고리 원정기』가 더욱 소중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소련 사회의 주변부 카자흐스탄 출신인 슐레이메노프는 러시아 관변 역사학에서 유목민들을 야만인으로 여기고 변방민족으로 여기는 편견을 조장해 왔음을 비판하면서⁴²⁾ 유라시아 사회에서 슬라브 중심적 사고의 틀을 넘어서고자 하였다. 그의 견해는 세계사에서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 동시에 유라시아 세계에서는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에서 보였던 것과 같은 러시아 중심주의 혹은 슬라브 중심주의적 사고를 수정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가 언어학적 지식, 분석을 중시했음은 상기한 바와 같은데, 이 같은 노력에서 그는 또 다른 소련 변방 출신의 학자, 곧 그루지야 출신의 언어학자인 마르에게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³⁾

3. 『아즈 이 야』를 둘러싼 소련 정치계와 학계의 논란

‘아즈 이 야’는 슬라브인들과 투르크계 민족들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살았고 살고 있는 공간인 유라시아의 다른 이름이다. 슐레이메노프는 또

41) 위의 책, 167.

42) 위의 책, 155-161.

43) 『아즈 이 야』에서 슐레이메노프는 여러 차례 마르의 견해를 언급하고 있다. 위의 책, 194-196, 200. 램은 마르와 슐레이메노프의 언어학 이론의 많은 유사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Ram(2001), 306-307.

한 유라시아 세계에서 다종다양한 문화와 삶의 방식이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 ‘아즈 이 야’는 상호관계의 공간이자 문화적 정체성이며 상호관계의 방식이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슬라브인들과 투르크인들의 세계에서 아시아인들 중 투르크인들의 요소가 우세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비록 저자 자신은 한 번도 명시적으로 이를 내세우거나 인정한 적이 없었지만 말이다.

어쩌면 이와 무관하지 않은 연상 때문이었는지, 『아즈 이 야』에 대해서는 러시아 중심주의자들과 소련 국가주의자들에게서 격렬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 책 자체는 김열 당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혹은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선의’를 가진 독자의 책’(Книга благонамеренного читателя)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었지만, 『아즈 이 야』의 내용은 곧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에서 날카로운 검증 받게 되었다. 심판은 다름 아닌 소련 공산당이였다.

1970년대 브레즈네프 정권은 민족문제와 관련해서 양면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 시기의 소련 지도부는 한편으로는 민족들의 ‘번영’(расцвет)과 ‘친화’(сближение)라는 기치를 내걸어서 1920년대 이래 소련 민족정책의 근간이었던 ‘토착화’(коренизация) 정책을 중시하는 듯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흐루시초프 집권기에 잠깐 나왔던 개념인 ‘소비에트 인민’(советский народ)론을 내세워 마치 새로운 소련 민족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언어적으로 러시아화 정책을 취함으로써 개별 민족의 문화적 정치적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후자는 ‘프라하의 봄’ 이래 브레즈네프 정권이 보수적 노선을 강화하면서 결국 1977년 헌법에서 개별 공화국들의 소련연방 탈퇴권을 삭제해 버린 것과는 부합하는 것이었다.⁴⁴⁾

이런 상황에서 소련 공산당이 『아즈 이 야』의 투르크 유라시아주의에 대해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었을 수도 있다. 소련 공산당의 이념담당 정치국원(소위 수석 이데올로그)이었던 미하일 수슬로프는

44) Fowkes(2002), 72.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 건은 브레즈네프에게까지 보고되었으며,⁴⁵⁾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 안건을 다루고자 생각했던 것 같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학술, 문화, 선전선동 세 부서에서 이 책을 다각도로 비판한 후 25차 당대회에서 이 책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준비했다. 그러나 숄레이메노프의 카자흐스탄인 동료들이 개입하여 선처를 요청하면서 국면이 바뀌었고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후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적 처분은 카자흐스탄 공산당에 위임하였다.⁴⁶⁾ 1976년 카자흐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 사무국은 이 책의 출판에 관계했던 인물들(출판사 사장, 국가 출판위원회 위원장)을 카자흐스탄 당에서 축출하려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런데 후일 스스로 솔회한 바로는 숄레이메노프는 이를 사전에 알게 되자 당시 카자흐스탄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쿠나예프와 카자흐스탄 당 중앙위원회에 공개적인 청원서를 보냈으며, 쿠나예프의 개입 덕분에 간신히, 출판 담당자들은 인사기록부에 그 내용이 기입되는 중벌을 면할 수 있었다.⁴⁷⁾

대신 『아즈 이 야』는 소련 언론계와 학계에서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사실 1975년 여름에 이 책이 6만 부 출간된 직후 카자흐스탄에서 출판되는 간행물들에 실린 이 책에 대한 서평은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었다.⁴⁸⁾ 모스크바에서의 반응도 심각하게 부정적이었던 편은 아니다. 10월 초에는 소련공산당 청년 조직인 콤소몰의 기관지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가 저자 숄레이메노프와 인터뷰를 했는데(10월 9일자에 게재), 질문자의 어조는 공격적이지

45) Цыганов, "Мир пока не превращен в пустыню,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понять свое Слово."

46) Л. Фризман, "Возмутитель спокойствия. Книга О. Сулейменова «Аз и Я» под огнем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критики"
<http://magazines.russ.ru/nlo/2002/55/friz.html> 검색일 2009. 07. 20. (프리즈만의 이 글은 원래 «НЛО» 2002, No. 55에 게재되었다.),

47) Цыганов, "Мир пока не превращен в пустыню,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понять свое Слово."

48) Бобров, "Сулейменов Олжас Омарович".

않았다. 질문자는 이 책의 집필배경, 동기, 과거 해석과의 차이, 『아즈 이 야』 제2부에서는 시적 상상력이 너무 크게 작용하지 않았는지 등등의 문제를 비교적 온건한 어조로 물었을 뿐이다.⁴⁹⁾ 그러나 상황은 곧 바뀌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이미 보수적인 『젊은 수비대』(Молодая Гвардия)지에 역사학 박사 아폴론 쿠지민의 공격적인 서평이 실렸다. 쿠지민은 슐레이메노프가 러시아인들에 대한 반감과 투르크 민족주의, 친시온주의를 조장한다고 비난했다.⁵⁰⁾ 그 얼마 후 역시 보수적 문학잡지인 『모스크바』에도 셀레즈네프의 서평이 실려 『아즈 이 야』 비판의 기류를 이어갔다.

이후 소련 학계와 논단에서는 이 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슐레이메노프의 책은 ‘민족주의’, ‘부르주아 실증주의’, ‘범투르크주의’라는 이념적 과오에 휩싸여 있으며 방법론적으로도 오류를 범했다고 비난받았다. 소련 학술원 회원이자 루스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저명한 전문가인 보리스 리바코프가 이 책에 대한 비판의 선봉에 나섰다. 드미트리 리하초프도 공격에 참여하였다. 1976년 2월 13일 소련 학술원 사회과학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47명에 달하는 소련 학술원 회원, 준회원, 박사들이 모여 아침 아홉시부터 저녁 여섯시까지 점심식사조차 거른 채 이 책을 성토하는 데 열을 올렸다. 리바코프는 이 자리에서 “알마 아타에서는 명백하게 반러시아적인 『아즈 이 야』라는 책이 수십만권이나 출판되었다”고 비난하였다.⁵¹⁾

슐레이메노프는 참회의 편지를 쓸 것을 요구받았다. 그리고 1977년 3월 19일자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브다』지에는 그의 이름으로 된 자기비판 서한이 게재되었다. 이 서한에서 슐레이메노프는 “『아즈 이 야』에 대한 비판적 지적을 분석해 본 결과, 제가 실제로 저지른 심각한 사실상의 부정확성, 학문적으로 근거 없는 결론들,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그릇된 주장들, 일련의 명제들

49) Сулейменов, “От мифа к истине”, 89-93.

50) Laruelle(2008), 173; Фризман, “Возмутитель спокойствия. Книга О. Сулейменова «Аз и Я» под огнем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критики”.

51) Цыганов, “Мир пока не превращен в пустыню,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понять свое Слово.”

의 불충분한 논증들, 논지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숙려의 부족과 즉흥성, 이의의 여지없는 진실과 학문적 권위에 대한 관계에서 위의 것들이 보이는 조잡한 단호함과 노골적인 지리멸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심각하게 자기반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⁵²⁾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 술레이메노프는 자신이 이 편지의 집필자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이 편지는 자기가 쓴 것과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⁵³⁾

탄압에도 불구하고 『아즈 이 야』는 비밀리에 퍼져나가 상당히 널리 읽혔다. 일부 독자들은 격심한 비판에 맞서 책과 저자를 단호하게 옹호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일례로 빅토르 스키르코라는 소련 시민은 리하초프에게 항의 편지를 썼다. 그는 편지에서 자신이 혈통상으로는 우크라이나인이고 언어, 교육, 문화적으로는 러시아인인데, 술레이메노프의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자신의 러시아 소비니즘에 대한 정당한 비판인 것으로 여겨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썼다. 스키르코는 자기가 ‘이교도 폴로베츠인들 및 다른 타타르인들’에 대한 중요성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 대한 경멸적 관용 속에서 자라난 사람인데, 술레이메노프의 책에서 바로 이 ‘이교도 폴로베츠인’ 후예들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고리 원정기』의 주인공인 이고리 스바토슬라비치를 비롯한 자기 선조들의 파렴치한 행위들과 폴로베츠인들의 영광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신들(러시아인들)의 이기주의, 아시아인들에 대해 유럽인들이 취하는 참기 힘들고 근거 없는 거만한 태도 등을 똑똑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자신의 느낌을 말했다. 스키르코는 무엇보다 『아즈 이 야』가 역사적 진실을 복원해 준다는 점에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한 그가 보기에 당국이 이러한 책에 대해 금서 판정을 내리고 책들을 일괄구입해서 폐기처분하였을 뿐 아니

52) Фризман, "Возмутитель спокойствия. Книга О. Сулейменова «Аз и Я» под огнем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критики."

53) 자신이 자기비판 서한의 진짜 필자가 아니라는 술레이메노프의 주장은 O. Сулейменов, *Эссе публицистика, стихи, поэмы, Аз и Я*, Алма-Ата: Жалын, 1990, 586에 실려 있다. Фризман, "Возмутитель спокойствия. Книга О. Сулейменова «Аз и Я» под огнем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критики" 참조.

라 저자인 슐레이메노프도 탄압을 하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었다. 스키르코가 분개하는 것은 리하초프가 바로, 『아즈 이 야』가 러시아인들의 명예와 영광을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이 책을 공격하는 데 가담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스키르코의 날카로운 비판 서한에 대해 리하초프는 정중하게 답변을 해 왔다. 그는 답신에서 카자흐인인 슐레이메노프는 폴로베츠인의 후예가 아니고, 러시아 학계는 러시아 소비니즘을 조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고리 원정기』의 주인공 이고리를 이상화하지도 않으며, 러시아 학계에 대한 소비니즘적 태도와 경멸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슐레이메노프라고 주장하였다. 리하초프는 소비니즘적 태도와 진정한 애국심을 구분하여 자신은 진정한 애국심을 위해 평생을 싸워왔다고 편지에서 자평하기도 하였다.⁵⁴⁾

스키르코는 재차 리하초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서도 그는 결코 물러서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슐레이메노프가 혈통상 폴로베츠인의 후예인가 아닌가는 문제가 아니고 그가 정신적으로 그들의 후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슐레이메노프가 결코 소비니즘적이 아니며, 민족주의적일 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부정적인 개념인 소비니즘에 대해 민족주의를 긍정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스키르코와 리하초프 사이의 서신왕래는 사적인 것으로 머물렀고 학계나 일반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는 않았다. 다만, 당시 소련사회에서 일반 시민이 사신에서나마 학계의 거물을 거침없이 비판하고 자기 사회의 정신적 협량함에 대해 날카로운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을 통해, 슐레이메노프의 책이 불러일으킨 논란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슐레이메노프는 리하초프와 개인적으로도 대면할 일이 몇 차례 있었는데, 리하초프는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아즈 이 야』의 주장에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귀를 기울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89년 5월 말 두 사람이 함께 대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소련 인민대표자 회의의 회의석상에서 리하초프는 발언권을 얻어 다음과

54) Мария Васильковна, “Три письма о книге «Аз и Я»,” http://tochka.gerodot.ru/slovo/maria_12.htm 검색일 2009.03.02.

같이 이야기했던 것이다: ‘러시아 문화는 고대부터 동방 문화, 특히 투르크 초원 문화와 상호작용을 해 왔다. 이를 명백히 증명해 주는 것이 『이고리 원정기』다’⁵⁵⁾

사실 술레이메노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이 시기 소련 정권의 일반적 이데올로기 통제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그리 혹독한 편은 아니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는 소련 공산당 당원자격을 소련 해체 때까지 계속 유지했으며 다른 물리적인 탄압은 받지 않았다. 그는 『아즈 이 야』에 대한 공산당 차원의 비판이 있는 지 5년만인 1981년에는 카자흐스탄 국가 영화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취임함으로써 소련 체제 내 제도권 문화활동의 영역 내로 다시 돌아왔다. 그 뿐 아니라 1983년에는 카자흐스탄 작가동맹 제1서기라는 막강한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 후로도 그의 공직생활은 순탄하게 이어져 그는 1989년에는 당시 개혁된 소련 인민대표자 회의(최고소비에트)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아즈 이 야』가 소련 공산당 및 카자흐스탄 공산당의 탄압을 받던 시기에 카자흐스탄의 일반 독자 대중이 이 책에 대해 보인 반응은 면담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단 공산당 차원의 비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검열 때문에 제도권 언론이나 출판물에서 공개적으로 술레이메노프를 지지하는 글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지만, 이것이 카자흐스탄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술레이메노프가 빠른 시기에 공적 활동 영역으로 돌아온 것은 그가 카자흐스탄의 지도층과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앞에서 줄드즈 그룹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카자흐스탄의 독자적 문화전통, 문학적 자율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문인 그룹의 선두주자요, 가장 인기 높은 카자흐스탄 출신 시인인 술레이메노프를 카자흐스탄의 일반독자들이 냉대했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아즈 이 야』의 출현과 그 저자가 받은 격렬한 비판은 1970년대 소련체제

55) Цыганов, "Мир пока не превращен в пустыню,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понять свое Слово."

가 부딪치고 있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의 소재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6년 미국 정부에서 간행하던 『공산주의의 문제들(Problems of Communism)』지는 페레스트로이카의 길을 예비한 가장 중요한 몇 권의 책을 들었는데, 『아즈 이 야』는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를 바로 이어 두 번째 순위로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⁵⁶⁾ 사실 페레스트로이카의 시작동기가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평가는 약간 과장되었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가 진행되면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비롯한 일반민주주의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던가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소련 해체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구공화국들의 분리라는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공산주의의 문제들』은 『아즈 이 야』의 출현이 가졌던 의미를 어쨌든 제대로 짚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한편, 『아즈 이 야』는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 유라시아주의가 각광을 받게 되고 구소련 공화국들과 러시아연방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이 책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늘어났다. 이 책은 1990년에 전체적 내용의 변화 없이 일부 구절만 수정하여 출판되었고 2005년에도 다시 출판되었다. 또한 솔레이메노프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선사시대 투르크인들에 관한 책에서, 러시아어 가운데 투르크어 기원이라고 여겨지는 단어들을 추적하는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⁵⁷⁾ 이는 결국 ‘민족주의’, ‘부르주아 실증주의’, ‘범투르크주의’에 대한 소련정부의 이념적 탄압이 무력한 것이 되고 말았음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준다.

4. 나오며

유라시아주의자들 중에서도 올자스 솔레이메노프는 레프 구밀료프와 함께

56) Цыганов, "Мир пока не превращен в пустыню,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понять свое Слово."

57) Сулейменов(2002).

투르크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높이 평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의 책 『아즈 이 야』는 일종의 투르크판 유라시아주의 혹은 슬라브-투르크 유라시아주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가가린의 우주비행 성공을 열렬히 찬미한 시에서 보듯 소련 시민으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모든 문필활동을 러시아어로 하였으나, 소련 내 민족들의 관계에서는 투르크인들이 러시아인(슬라브인)들과 대등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즈 이 야』는 역사 속에서 동슬라브인들과 아시아계 유목민들이 나눈 문화적 교류와 조화로운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담론에서 양자의 관계는 대등한 것이었다.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에서와는 달리, 유목민들에 대한 루스인들의 패권적 관계는 『아즈 이 야』의 저자에게서는 용인되지 않았다.

구밀료프가 러시아에서 출발하여 투르크 민족들을 향해 갔다고 한다면 슐레이메노프는 투르크 민족에게서 출발하여 러시아로 왔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슐레이메노프는 20세기 후반 소련의 구성원으로서 독특한 색깔을 가진 유라시아주의적 역사관을 구축하였다. 그의 유라시아주의는 유라시아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 정주민과 유목민의 상호의존성, 아시아계 주민들의 문화적 역사적 독자성 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러시아인들의 유라시아주의와 공통점도 없지 않다. 그런데 슐레이메노프의 역사관은 러시아 유라시아주의자들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훨씬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의 독특한 역사관은 서구중심주의를 거부하며 유라시아 세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서구인들에게 특별히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서방 세계를 비롯한 다른 세계와의 대립을 주장한 것은 결코 아니다.

슐레이메노프는 한때 대통령 후보로 물망에 올랐을 정도로⁵⁸⁾ 카자흐스탄 내에서 막강한 신망을 얻고 있다. 소련 해체에 따라 카자흐스탄이 독립을 얻은 후 그는 이탈리아 주재 카자흐스탄 대사, 유네스코 본부 카자흐스탄 대표 등의 공직을 맡아 대외적 교류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현실정치 권력관계에 미치는 영향보다, 민족 간·문명 간 관계에 관한 담론과 가치

58) Laruelle(2008), 173.

관의 제시라는 면에서 더 주목되는 인물이다. 슐레이메노프는 소련 해체 후 유라시아 지역 사회들을 통합할 대체 기구로서 유라시아 연합을 창설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최근까지 그는 국제주의를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이념의 하나로 찬양하면서, 카자흐스탄의 입장에서는 유라시아주의야말로 국제주의적 이념을 지켜나가기 위한 새로운 구상이라고 말해 왔다.⁵⁹⁾ 슐레이메노프는 2000년 4월에 알마티에서 열린 유라시아 경제 정상회의에서 실�크로드의 복원과 이를 통한 동서의 연결 및 교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념으로서 유라시아의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⁶⁰⁾

앞서 말했듯이 카자흐스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도 유라시아 연합을 제안했고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는 바로 그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수용된 결과 형성된 것이었다. 나자르바예프의 유라시아론 형성에 슐레이메노프의 영향력이 작용하였는지, 슐레이메노프의 문화적 투르크 유라시아주의는 국제관계의 구체적 지침으로서의 유라시아 연합론, 혹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론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일 것이다.

59) 2004년 12월 14일에 이루어진 한 인터뷰에서 슐레이메노프는 국제주의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표현하였다. А. Кусаинова; К. Степанова, "Олжас Сулейменов: Бог создал нас как фрагменты мозаики", <http://www.freeas.org/?nid=3785> 검색일 2009. 05. 02. 2002년에 행한 것으로 보이는 한 인터뷰에서도 슐레이메노프는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국제주의자뿐'이라고 말하였다. Олжас Сулейменов, "Сегодня Зимбабве имеет своего чер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черный парламент и черную беспросветную жизнь", <http://www.russians.kz/opinion/992475-olzhas-sulejmenov-segodnja-zimbabve-i-meet-svoego.html> 검색일 2009.05.25.

60) Олжас Сулейменов, "Выступление на Евразий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аммите в Алматы", *Собрание сочиний* т. 7, 284-290. 참고로, 이 연설에서 슐레이메노프는 소련의 해체는 유럽연합과 같은 미래의 새로운 통합체를 형성하기 위한 전주곡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같은 글, 285.

참고문헌

1차 문헌

- Васильковна, М., “Три письма о книге «Аз и Я»,”
http://tochka.gerodot.ru/slovo/maria_12.htm. 검색일 2009.03.02
- Назарбаев, Н. А.(1997) *Евразийский союз: идеи, практика, перспективы, 1994-1997*, Москва: Фонд содействия развитию социальны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наук.
- Сулейменов, О.(1964) *Доврое время восхода*, Алма-Ата Издательство Жазушы.
- _____ (1969) *Глиняная книга*, Алма-Ата: Жазушы.
- _____ (2002) *Тюрки в доистории. О происхождении древнетюркских языков и письменностей*, Алматы: «Алтамира».
- _____ (2004) *Собрание сочинний* тт. 6, 7, Алматы: Алтамұра.
- _____ (2005) *Аз и Я. Книга благонамеренного читателя*, Москва: «Грифон М».

인터뷰

- Канапьянов, Б., “Быть далеко услышанным: Олжасу Сулейменову – 70”
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 2003, Выпуск №. 19.
http://www.lgz.ru/archives/html_arch/1g192006/Polosy/6_3.htm 검색일
 2009. 08. 12.
- Кусаинова, А.; Степанова, К., “Олжас Сулейменов: Бог создал нас как
 фрагменты мозаики”, <http://www.freeas.org/?nid=3785>, 검색일 2009. 05.
 02.
- “Олжас Сулейменов: Некоторые идеи АЗИЯ непоняты до сих пор“ Dialog
 18.04.2008 <http://www.dialog.kz/?lan=ru&id=95&pub=958>, 검색일 2009. 07.
 21.
- Сулейменов, О., “Сегодня Зимбабве имеет своего чер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черный парламент и черную беспроблемную жизнь”,
<http://www.russians.kz/opinion/992475-olzhas-sulejmenov-segodnja-zimbabwe-imeet-svoego.html>, 검색일 2009. 05. 25.

Цыганов, О., “Мир пока не превращен в пустыню,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понять свое Слово. О Слове и «Слове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с Олжасом Сулейменовым беседуют Гульнара Рахметова и Олег Цыганов.”
http://www.pseudology.org/tatary/Sulejmenov_3.htm, 검색일 2009. 07. 20.

2차 자료

신범식(1998)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의 두 측면에 대한 일고찰」, 『러시아 연구』 제8권 제2호.

_____(2001) 「러시아: 유라시아주의와 아틀란티스주의 사이에서」, 『역사비평』, 통권 54호.

한정숙(1999) 「슬라브적인 것과 유라시아적인 것 - 범슬라브주의와 유라시아주의를 통해서 본 러시아의 민족주의 이념」, 한국 서양사학회 편, 『서양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 까치.

Бобров, А. Г., “Сулейменов Олжас Омарович”// Энциклопедия Слова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http://feb-web.ru/feb/slovinc/es/es5/es5-0831.htm>, 검색일 2009. 07. 21.

Лавров, С. Б.(2000) *Лев Гумилев. Судьба и идеи*, Москва: Сварог.

Фризман, Л., “Возмутитель спокойствия. Книга О. Сулейменова «Аз и Я» под огнем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критики”
<http://magazines.russ.ru/nlo/2002/55/friz.html> 검색일 2009. 07. 20.

Böss, O.(1961) *Die Lehre der Eurasier: Ein Beitrag zur russischen Ideengeschichte des 20. Jahrhunderts*, Wiesbaden: Otto Harrassowitz.

Fowkes, B.(2002) “The National Question in the Soviet Union under Leonid Brezhnev: Policy and Response”, Edwin Bacon, Mark Sandle(eds.), *Brezhnev Reconsidere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Laruelle, M.(2008) *Russian Eurasianism: An Ideology of Empir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öllwerth, A.(2007) *Das sakrale eurasischen Imperium des Aleksandr Dugin: Eine Diskursanalyse zum postsowjetischen russischen Rechtsextremismus. Mit einem Vorwort von Dirk Uffelmann*, Stuttgart: Ibidem.
- Ingram, A.(2001) "Alexander Dugin: geopolitics and neo-fascism in post-Soviet Russia", *Political Geography*, vol. 20, no. 8.
- Olcott, M. B.(1983) "Intellectuals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ism in Kazakhstan" *Final Report to National Council for Soviet and East European Research*, November 11,
- Ram, H.(2001) "Imagining Eurasia: The Poetics and Ideology of Olzhas Suleimenov's Az i Ia," *Slavic Review*, vol. 60, no. 2.
- Rossmann, V.(2002) *Russian Intellectual Antisemitism in the Post-Communist Era*, Lincoln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hlapentokh, D.(2007) *Russia between East and West: Scholarly Debates on Eurasianism*, Leiden-Boston: Koninklijke Brill NV.
- Zimin, A. A.(2006) "The Hypatian Chronicle and The Song of Prince Igor" *Russian Studies in History*, vol. 45, no. 2.

Abstract

Olzhas Suleimenov's *Az i Ya* and Some Controversies Over it

Hahn, Jeong-sook

This article tries to analyse the linguistic Turkic Eurasianism formulated in Suleimenov's book *Az i Ya*(Аз И Я, 1975) and the controversies bursted out around this book in the Soviet political and academic arena.

In *Az i Ya* Suleimenov tried to reread and linguistically analyze the text of the famous *Tale of Igor's Campaign* (Слово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According to Suleimenov, this epic should be read as the evidence of the mutual contacts and cultural interactions between the ancient Eastern Slavic and the Turkic peoples than as a literary expression of their mutual enmity. He maintained that the Rus' people (Slavs) and the Polovtsian people (Turkic nomads) around the 12th century coexisted friendly, sharing various experiences in the southern steppe of Eurasia. Turkic linguistic elements penetrated deeply through the Rus' society. The Turkism in the *Tale of Igor's Campaign* gives its evidence.

Az i Ya roused a torrent of criticism from the Russo-centrists and the Soviet etatists. The book was attacked by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the Communist Party of Kazakhstan and Soviet scholars. The book was banned and the persons involved in the publication of the book were repressed. But for the Soviet readers it opened new horizons in understanding the relations of various peoples in the ancient Eurasia.

Az i Ya does not presuppose for Eurasian world a hegemonic role of the Rus' people over the Turkic nomads. According to it, their position

is equal. Suleimenov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ultural exchange and harmonic coexistence of the Eastern Slavs and nomadic peoples. It is true that he is surely an Eurasianist, but he seems in such way to get out of the boundary of Russo-centrism of Russian Eurasianists.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09. 10. 9
논문심사일:	2009. 11. 10 ~ 2009. 12. 10
심사완료일:	2009. 12. 14